

2013. 7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3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3.7.30.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송인덕, 오덕성, 김형주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창욱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7	-	-	14	-	14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5	9	-	1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1건	11 건	6월
교양	원도심 활성화 방송에서 다루길	'시사플러스'에서 원도심활성화 다룸	6월
교양	'토크앤 조이' 시청자들과 교감 가질 수 있도록 제작	'토크 앤조이' 시청자 눈높이 맞게 교감 나눌 수 있게 제작함	6월
보도	보도 영상 맞지 않는 다른 영상 사용하지 않기를	기자의 멘트에 맞는 영상 사용	6월
보도	토론 프로그램 이슈화 되는 의제로 제작할 것	토론 프로그램 최근 이슈화되는 주제로 프로그램 제작	6월
보도	보도 뉴스 자막 사용 철저하게	자막 사용 뉴스내용에 맞게 사용	6월
교양	'토크 앤조이' 소재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소재로	시청자들이 감동 받을 수 있는 인물 섭외 제작	6월
보도	뉴스에서 도전하는 젊은 청년들 발굴하여 보도하길	도전하는 청년들 계속 발굴하여 소개	6월
교양	특집 기획방송 다양하게 선보이길	올해 특집다큐 '황해'를 비롯 3편 이상 기획 제작 중	6월
보도	헤드라인 뉴스 지역민의 현안 전진 배치하길	헤드라인 뉴스 지역민의 관심사를 배치함	6월
교양	'시사플러스'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PD 역할 확대 필요	'시사플러스'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PD 역할 확대	6월
보도	지역스포츠 보도 확대	지역스포츠 기사 확대함	6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시사플러스 「태안 암마을의 진실은../송전탑왕국, 당진의 눈물」(07.12.)편을 보았다.</p> <p>먼저 방송된 ‘태안 암마을의 진실은’편에서는 태안의 한 지역의 안타까운 상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당국의 조치를 고발하고 있었다. 태안 지역은 2007년 12월 기름유출사건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어서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상황을 소개함으로써 공감대를 얻은 것 같았다. 하지만, 단순히 주민들의 일방적인 말을 전달하고 상황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시청자들에게 전달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았다.</p> <p>다음으로 ‘송전탑 왕국, 당진의 눈물’편에서도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현 상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전편에 비해 세밀한 자료를 분석해 주변국가와의 수치적으로 비교하고 있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쉬웠다. 또한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소개하고 있어 이해하기 용이하였다. 향후 이러한 적절한 예와 세부적인 자료를 통해 시청자의 이해도를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오덕성).</p>	<p>시사플러스는 대개 2개의 아이টে을 다루고 있다. 첫 아이টে은 한 주의 핫 이슈를 취재하고 두 번째 아이টে은 심층취재를 통해 깊이있는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2개의 아이টে은 취재시간의 차이, 제작인력의 한계 때문에 비슷한 완성도를 도출하기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아이টে은 경우에는 하나의 아이টে으로 가기도 한다.</p> <p>제작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정밀한 취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익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p>	편성 의견참고
교양	<p>TV특강 「대한민국 두 번째 기적을 향해」(7.10.)편을 보았다. 이번 주 TV특강에서는 ‘대한민국 두 번째 기적을 향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가 오늘날 까지 성장하게 된 원동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날 젊은이들에게 국가 과학 기술력의 중요성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p> <p>본 편에서는 특히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기 앞서 진행자가 간단한 사례 소개를 통해 시청자에게 본 강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방청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한 강사님의 태도로 인하여 강의의 분위기는 경직되지 않고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으며, 다양</p>	<p>TV특강은 지역MBC 공동제작 프로그램이다. 각 해당사 제작진과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에서 다루는 자료화면을 강의 내용에 뒷받침할 수 있게 설득력 있는 화면으로, 자막과 그래픽 화면도 수준 있는 영상화면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p>	편성 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한 사례 제시를 해주어 방송이 끝날 때 까지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의에 사용된 발표 자료가 시청자들에게는 적절하게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는 강의 발표 자료를 현장 VCR을 촬영하여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래픽 작업을 통하여 시청자들도 선명한 자료를 강의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오덕성).</p>		
교양	<p>공간 다큐멘터리 '그 곳' 「부평 강통시장을 아십니까?」 (7.1)편을 보았다. 이번 주 공간 다큐멘터리 '그 곳'은 부평 강통시장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동질감과 애乡심을 고취시켜주는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p> <p>특히 본 편에서는 강통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시민들과의 생동감 넘치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 이웃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리포터와 시민이 대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거부감 없이 방송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지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잘 정돈된 느낌의 다큐멘터리에 비해 인터뷰 내용이나 편집된 영상이 다소 투박해 보일 수 도 있지만, 시민들과의 꾸밈없는 인터뷰는 오히려 시청자에게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올 수 있었다(오덕성).</p>	<p>좋은 평가에 감사하다. 말씀하신대로 '공간 다큐 그 곳'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가감없는 일상들을 다소 투박하더라도 진실된 몸짓의 영상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항상 시청자들에게 새롭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편성 수용
보도	<p>7월 25일 지상파방송 3사 메인 저녁뉴스를 모니터링했다. 첫 뉴스가 '휴가철 물가 심상치 않다'라는 내용을 다루었는데 뉴스 내용에는 휴가철 물가와 휴가지 물가를 혼용하여 뉴스를 전달하였다. 영상화면에도 휴가지 물가를 언급하면서 도심 백화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엄연히 휴가철과 휴가지와는 그 의미전달이 다르다고 본다. 정확한 어휘 선택을 필요로 한다(유덕순).</p>	<p>휴가철 전반적인 물가를 점검하면서 휴가지 물가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취지였으나 주제가 분산된 점이 있었다. 주의하겠다.</p>	보도 수용
보도	<p>7월 25일 메인 저녁뉴스에 TJB와 KBS대전에는 '허술한 최저시급제'를 비중있게 리포터뉴스로 내보냈다. 사업주가 청소년들에게 법이 정한 예외사항을 교묘히 적용해서 그 이하로 받게 되는</p>	<p>청소년 고용 문제에 대한 심층 보도를 기획중이다.</p>	보도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경우를 고발하고 있었다. 대전MBC에서는 아예 이 뉴스가 취급이 되지 않아 아쉬움을 갖는다(유덕순).		
보도	7월 25일 뉴스데스크에서 충북도가 대청호 생태 탐방선을 띄우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충북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 않다. 그 이유를 상세하게 지적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의 반대 이유를 전달해 주었다면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유덕순).	충북도의 경우 지자체의 수익사업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으로 본 뉴스에서는 충청권 광역 지자체의 상생 차원에서 접근했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7월 20일 '토크 앤 조이' 시간에 한옥연구소 이상현 소장이 출연하였다. 일단 의상이 눈에 벗어난다. 상의는 개량한복, 하의는 청바지를 입고 출연하였다. 한옥을 10년 넘게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한옥의 과학적 적용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다고 본다. 고건축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출연자 섭외를 고려한다면 우리지역 예산의 중요 무형문화재인 대목장 전홍수씨도 있다. 이번 주 '토크 앤조이' 출연자 선정은 아쉬움을 준다(한찬희).	이상현 소장은 한옥을 대중적으로, 쉽게 전달하는데 장점이 있는 분이다. 전홍수 대목장은 인간문화재로서 우리나라 고건축의 대가지만 대중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의를 청바지 입고 출연한 지적은 옳은 지적이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시사광장(7/14)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패널로 대전시 담당국장, 충대 사회학과 교수, 대전여성단체 대표,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등이 출연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의 패널 중 어떤 분은 책을 읽듯이 토론에 임해 흥미를 반감시켰다. 패널 선정을 잘하길 바란다(박희원).	패널 선정시 더 유의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7월 1일부터 '성년 후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종래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에 대한 고려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다. 새로 시행하는 '성년 후견인 제도'는 본인의 의사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 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뉴스 제작시 참고하길 바란다(장동환).	참고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원도심 활성화 문제로 대전시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충남도청을 임대하여 시민대학의 좋은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시사플러스'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써 주길 바란다(장동환).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시사플러스 제작진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대전의 공간적인 상징일 뿐 아니라 대전시의 공동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이라 생각한다. 프로그램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여름철 피서지 겸 가볼만한 곳을 소개하고 있다. 태안지역을 소개했는데 특정 지역은 CG 작업을 통해 지도로 보여주어 시청자들에게 안내 겸 정보를 제공했다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김영광).	'생방송 아침이 좋다-바다쪽으로 한뼘 더'에서 지도표기는 시청자들에게 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시정조치 하였다.	편성 수용
보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은 많지 않은 듯하다.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저녁 시간대 '특급작전'에는 시사와 해학을 표방한 시사콩트 <달리는 김기사>가 청취자들에게 전달된다. 들어봐도 진행되는 2명의 MC가 전달하는 콩트가 어색하다. 사투리를 할려면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하든가 그것이 부족하면 차라리 표준어로 하든가 2MC의 호흡이 약해 더 연습을 필요로 한다(김영광).	'특급작전의 달리는 김기사'는 시사문제를 사투리로 풍자하는 코너이다. 충청도 사투리의 여유있고 구수한 맛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시사광장'(7월 21일)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논란>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여야(새누리당, 민주당) 의원이 동반 출연을 하여 각 당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뜨거운 토론을 벌일 법도 한데 아쉽게도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만 출연하여 아쉬움이 들었다(김경숙).	패널등이 토론 참여직전 출연을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 유의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시사광장'(7월 14일)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논의했던 내용이 반복 전개되어 이전 논의와 차별화된 심도 있는 토론은 아니었다고 본다. 충남지역 중 청양은 대표적인 초고령화지역이다. 토론 주제에 맞는 패널선정이 프로그램 깊이와 신뢰를 심어준다는 차원에서도	패널 선정시에도 충분한 회의와 사전 기획등에 더 주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대전지역의 인사가 아닌 충남지역의 인사로 섭의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김경숙).		